

컴퓨터 속의 한글 이야기
셋째 보따리
김 경석

제일 출판, 2012.09.

<http://asadal.pusan.ac.kr/~gimngs0/book/hgiyagi3.html>

제 1 부 일반인을 위한 한글 빨리 적기 (컴퓨터 속기)	15
1. 들머리	17
2. 전문가 빨리 적기/치기 (속기) 소개	21
3. 일반 사람들이 한글을 제법 빨리 치기	28
4. 한글 글자마디 치기 방식	31
5. 맷음말	42
참고 문헌	43
6. 덧붙임: 안 마태 신부의 속기 자판과 관련하여	44

제 1 부 일반인을 위한 한글 빨리 적기 (컴퓨터 속기)	15
1. 들머리	17
1.1 용어	18
2. 전문가 빨리 적기/치기 (속기) 소개	21
2.1 아주 빨리 적기/치기의 종류	21
2.2 영어 빨리 치기 소개	22
2.3 영어 빨리 치기 자판은 세벌식	23
2.4 컴퓨터에서 쓰는 한글 빨리 치기 자판	25
3. 일반 사람들이 한글을 제법 빨리 치기	28
3.1 일반 사람들이 한글을 제법 빨리 칠 수 있는 이유	28
3.2 제법 빨리 치기를 할 때의 세벌식과 두벌식 한글 자판의 성능 비교	30
3.3 빨리 치기의 관점에서 살펴 본 한글 가로 풀어 쓰기	31
4. 한글 글자마디 치기 방식	31
4.1 자판에 있는 글자의 분류	32
4.2 글자마디 치기 방식에서 글자(홀글자와 겹글자)를 치는 방법	33
4.3 글자마디 치기 방식에서 글자마디를 치는 방법	37
4.4 타자하는 요령: 보기	38
4.5 한글 글자마디 치기 방식의 장점	40
4.6 한글과 영어 빨리 치기 자판을 견주어 보기	41
5. 맺음말	42
참고 문헌	43
6. 덧붙임: 안 마태 신부의 속기 자판과 관련하여	44
6.1 세종 89 자판과 공 병우 박사	44
6.2 세종 89 자판 개발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	45
6.3 안 마태 신부 자판	46
6.4 전문 속기사 수준까지?	46
6.5 세종 89 개념에 따라 여러 가지 글자 배열의 자판이 가능하다	47
6.6 안 마태 신부님의 자판을 처음 보던 날	47
6.7 안 마태 자판의 타자 속도	48

제 1 부
일반인을 위한 한글 빨리 적기
(컴퓨터 속기)

속기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적는/치는 기술인데, 전문적인 훈련을 오래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그와 같이 빠르지는 않지만,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훈련하여 타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여기에서는, 일반인들이 공 병우 390 세벌식 한글 자판을 써서 컴퓨터에서 한글을 빨리 칠 수 있는 글자마디 치기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 제안된 "글자마디 치기" 방식은, 한 글자마디를 이루는 모든 글쇠를 되도록 한꺼번에 누름으로써, 한글 입력 속도를 높이고 오타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한글 및 영어 빨리 치기에서는 글자마디를 하나치로 하여 치며, 또한 그 결과로 세벌식 자판을 쓴다. 그런데, 한글은 이미 글자마디를 하나치로 하여 모아 쓰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세벌식 자판이 이미 보급되어 있다는 두 가지 점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통 세벌식 자판으로 글자마디 치기 방식을 써서 컴퓨터에서 빨리 치기를 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은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글자계로는 한글 밖에는 없고, 또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자판도 한글 세벌식 자판 말고는 없다는 데서, 우리 한글과 한글 자판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 한편, 두벌식 자판은 아무래도 세벌식보다 빨리 치기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기에서 제안된 글자마디 치기 방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고, 또한 글자마디 치기 방식이 보통 글자 치기 방식보다 얼마나 더 타자 속도가 빠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1. 들머리

속기라고 하여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적는/치는 기술에 대하여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와 같이 하려면 전문적인 훈련을 오래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그와 같이 빠르지는 않지만,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도, 공 병우 390 세벌식 한글 자판으로 스스로 훈련하여 타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1에서는 먼저 용어를 살펴보겠다. 제 2 장에서는 전문가들이 하는 빨리 치기를 살펴보겠다. 제 3 장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한글을 제법 빨리 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 일반인이 빨리 치기를 할 때 세벌식과 두벌식 자판 가운데 어느 것이 좋은지 견주어보고, 또한

빨리 치기의 관점에서 한글 가로 풀어 쓰기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나서 제 4 장에서는 일반인용 한글 제법 빨리 치기 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끝으로 5 장에는 맺음말이 있다.

1.1 용어

1) 소리마디와 글자마디

우리는 보통 소리와 글자를 구분하지 않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때가 많다. 여기서는 소리를 바탕으로 한 소리마디와 그에 대응하여 글자를 바탕으로 한 글자마디라는 용어를 먼저 살펴보자.

가) 소리마디: 음절(syllable)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소리를 바탕으로 한 용어이며 소리를 가리킨다. 소리마디라는 용어는 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글자떼(character string)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한 소리마디에 가운뎃소리는 늘 있고, 첫소리와 끝소리는 각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나) 글자마디: 소리마디에 대응하여, 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글자를 바탕으로 한 용어이며, 글자떼를 가리킨다. 한글 글자마디에는 첫소리 글자와 가운뎃소리 글자는 늘 있고, 끝소리 글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소리마디에 첫소리가 없을 때는 글자마디를 적을 때 소리값이 없는 첫소리 글자 이응(ㅇ)을 앞에 두기 때문에, 소리마디에는 첫소리가 없을 수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글자마디에는 늘 첫소리 글자 이응(ㅇ)이 있다.

소리마디와 글자마디는 보기를 들어 견주어 보면 알기 쉽다. 보기를 들어, "솔이"에서 글자마디로는 "솔"과 "이"가 있지만, 소리마디로는 /소/와 /리/가 있는데, 글자마디의 경계와 소리마디의 경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보기로 "법률"에서, 글자마디로는 "법"과 "률"이 있지만, 소리마디로는 /범/과 /닐/이 있다.

2) .. 글쇠 .. 탁

- **한 글쇠 타**: 한 글쇠만으로 한 타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보통 타자할 때 윗글자쇠를 누르지 않으면, 이것이 곧 한 글쇠 타이다. 보기를 들어, ㄱ을 치면, 글쇠 한 개만을 눌렀다 떼는데, 이것이 곧 한 글쇠 타이다. ㅏ도 마찬가지로 한 글쇠 타이다.

- **두 글쇠 타**: 두 글쇠를 한꺼번에 쳐서 한 타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보기를 들어, ㄱ과 ㅏ를 한꺼번에 눌렀다 떼어 (이와 같이 칠 때 ㄱ + ㅏ로 나타내기로 한다) "가"를 한 번에 칠 때, 이것은 두 글쇠 타라고 한다. 두 글쇠를 한 타에 한꺼번에 누른 것이다. 또 다른 보기를 들면, 공 병우 390 세벌식 한글 자판에서 ㅈ를 칠 때, 영어로 r 자리의 글쇠와 윗글자쇠를 같이 누르게 되는데, 이 때도 글쇠 두 개를 한꺼번에 누르는 것이므로 두 글쇠 타가 된다. 영어로 치면, 대문자를 칠 때 모두 두 글쇠 타가 되며, 한글의 경우에 윗글자쇠에 있는 글자를 칠 때는 두 글쇠 타가 된다 (보기, ㄷ, ㅈ, ㅊ 따위).

- **세 글쇠 타**: 세 글쇠를 한꺼번에 쳐서 한 타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보기 ㄱ + ㅏ + ㄴ, ㅇ + ㅈ + 윗글자쇠

- 이처럼 글쇠의 수를 헤아릴 때는 윗글자쇠도 하나로 치며, 한꺼번에 누르는 글쇠의 수를 가리킨다. 네 글쇠 타, 다섯 글쇠 타, ... 따위도 비슷하게 정의할 수 있다.

- **타**: 글쇠를 한 개 또는 여러 개 한꺼번에 눌렀다가 떼는 것을 한 타라고 한다.

보기 1: "애"를 칠 때, "ㅇ"과 "ㅈ"를 따로 치면, 한 글쇠 타가 두 개 이다. 이를 줄여서 한 글쇠 두 타라고 부르기로 하자. 글쇠 수를 무시하고, 타수만 생각하면 이것은 두 타이다.

보기 2: "애"를 칠 때, "ㅇ + ㅈ"를 한꺼번에 치면, 두 글쇠 타가 한 개 이다. 이를 줄여서 두 글쇠 한 타라고 부르기로 하자. 글쇠 수를 무시하고, 타수만 생각하면 이것은 한 타이다.

보기 3: "ㅈ"를 칠 때, "ㅈ + 윗글자쇠"로 치면, 두 글쇠 한 타이고, "ㅈ + ㅣ"를 한꺼번에 치면 두 글쇠 한 타이고, "ㅈ"와 "ㅣ"를 따로 치면 한 글쇠 두 타가 된다.

- 일반 사람들이 타자할 때, 윗글자쇠를 안 쓰면 한 글쇠 타이고, 윗글자쇠를 쓰면 두 글쇠 타이다. Alt 글쇠와 다른 글쇠를 같이 누르는 것도 두 글쇠 타이다.

거기에 견주어, 한글 글자마디 치기 방식에서는 한 글쇠 타와 두 글쇠 타 밖에도 세 글쇠 타, 네 글쇠 타, 다섯 글쇠 타 따위를 지원한다.

3) **글자 치기 (방식):** 한 번에 한 글자를 치는 방식이며, 보통 우리가 치는 방식은 다 글자 치기이다. 글자 치기에서는 한 글쇠 타와 두 글쇠 타(보기: 윗글자쇠를 누를 때)를 주로 쓴다.

4) **글자마디 치기 (방식):** 되도록이면 한 글자마디를 한 타에 치려고 여러 글쇠를 한꺼번에 눌렀다가 떼는 방식이다. 한꺼번에 여러 글쇠를 누를 수 있으므로, 한 글쇠 타뿐만 아니라, 두 글쇠 타, 세 글쇠 타, 네 글쇠 타, 다섯 글쇠 타 따위도 쓸 수 있는 방법이다. 한글 빨리 치기는 글자마디 치기 방식으로 하고 있다.

한글 글자마디 치기에서는 글자를 있는 그대로 치는데, 이것이 소리값을 치는 소리마디 치기(아래 5) 참조)와 다른 점이다. 보기를 들어 "법률"의 소리값이 /범눌/이지만, 글자마디 치기에서는 "법률"로 친다.

5) **소리마디 치기 (방식):** 영어는 낱말을 이루는 글자와 그 소리값 사이에 규칙이 거의 없다시피 하므로, 영어 빨리 치기에서는 낱말을 이루는 글자를 그대로 치지 않고, 낱말의 소리값을 한 소리마디씩 한꺼번에 친다. 소리마디 치기에서는 소리값을 치는데, 이것이 글자를 있는 그대로 치는 한글 글자마디 치기(위의 4) 참조)와 다른 점이다.

6) **빨리 치기:** 아래 6) 아주 빨리 치기와 7) 제법 빨리 치기를 모두 가리킨다.

7) **아주 빨리 치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하는 방식. 국회나 법정에서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적을/칠 수 있어야 한다. 영어, 한글 등에서 할 수 있다.

8) **제법 빨리 치기:** 한글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보통의 세벌식 자판으로 전문 훈련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국회나 법정에서 말하는 것을 적을/칠 수 있을 정도는 안 되지만, 글자 치기보다는 꽤 빠르다.

9) **윗글쇠 (윗글자쇠):** 영어로 shift key라고 하여, 어떤 글쇠의 윗글자를 치기 위하여 누르는 글쇠를 윗글쇠(또는 윗글자쇠)라고 한다.

2. 전문가 빨리 적기/치기 (속기) 소개

영어나 한글 아주 빨리 치기는 아직도 전문가들만 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전문가들이 하는 아주 빨리 치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2.1에서는 아주 빨리 적기/치기의 종류를 살펴보고, 2.2에서는 영어 빨리 치기를 살펴볼 것이며, 영어 빨리 치기에 쓰는 자판은 세벌식이라는 것을 2.3에서 보겠다. 끝으로, 2.4에서는 컴퓨터에서 쓰는 한글 빨리 치기 자판을 살펴보겠다.

2.1 아주 빨리 적기/치기의 종류

아주 빨리 적기/치기는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손으로 빨리 적기(수기 속기)"라고 하여, 손으로 연필 등을 써서 적는 것이다. 빨리 적기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방식을 하였으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 방식을 썼다. 여기에서는 손으로 빨리 적기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둘째, "기계로 빨리 치기(기계식 속기)"라고 하여, 손으로 빨리 적기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이다. 타자기 비슷한 기계로 써서 하게 되는데, 한 번에 한 글쇠(key)씩 치는 일반 타자기와는 달리, 한 번에 여러 글쇠를 누른다 (친다). 컴퓨터 자판에서 control-shift-x를 칠 때 그 세 글쇠를 한꺼번에 누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기계 자체는, 보통 타자기와 마찬가지로, 수동식도 있고, 전동식도 있다. 영국의 Palantype[붙임 1]과 미국의 Stenotype이 대표적인 보기이다 [붙임 2]. 여기에서는 기계로 빨리 치기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셋째, "컴퓨터로 빨리 치기(컴퓨터 속기)"라고 하여, 컴퓨터를 써서 빨리 치기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손이나 기계로 할 때가 아니라 컴퓨터로 빨리 칠 때를 대상으로 한다. 손이나 기계로 빨리 적을/칠 때는, 일단 처음에 들으면서 적은/친 것을 뒤에 정리하는 것을 모두 사람이 하였지만, 컴퓨터로 하게 되면서 정리하는 부분 가운데 일부는 프로그램이 대신 하기도 한다.

2.2 영어 빨리 치기 소개

컴퓨터에서 쓰는 영어 빨리 치기 자판에서는 소리마디를 하나치(단위)로 하여 소리마디를 이루는 여러 글자를 한꺼번에 친다. 보기를 들어, result라고 하면 re를 한 소리마디로 하여 치고, sult를 한 소리마디로 하여 치게 된다. 영어 빨리 치기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글자를 보고 바로 치는 것이 아니라 낱말을 머리 속에서 소리마디로 나누어서 한 번에 소리마디 하나씩을 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어 낱말을 듣고 소리마디를 하나치로 하여 치려면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낱말을 듣고 낱말의 소리마디 경계를 알아내야 한다.

둘째, 소리마디 하나마다 그 소리값을 알아내야 한다.

셋째, 그 소리마디를 나타내는 글자의 조합을 알아내어 친다.

보기를 들어 result라는 낱말을 치려면, 첫째 re와 sult라는 소리마디 두 개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둘째, re의 소리값은 /re/가 아니라 /ri/임을 생각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ri/를 어떻게 쳐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다른 보기를 들어 says 라는 낱말을 치려면, 첫째 이걸 한 소리마디이고, 둘째 소리값은 /sez/ 이고, 셋째 이를 어떤 글자의 조합으로 쳐야 할 지 알아내야 한다.

이제 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영어 낱말의 소리마디 경계를 알아내야 하는데 소리마디의 경계를 알아내는 것은 교육을 제법 받아야 하며 또한 이를 귀로 들으면서 머리로 빨리 빨리 해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소리마디마다 소리값을 생각해 내야 하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글자와 소리값 사이가 규칙적이지 않다. 보기를 들어, kilo에서는 /k/ 소리가 나지만 knee 나 knock에서는 k가 소리나지 않는다. 또한 can의 c는 /k/와 같은 소리가 난다. trough에서 gh는 /f/ 소리가 난다. 따라서, 영어 trough라는 낱말을 글자 그대로 적을 때와(보기: trough), 그 소리값을 적을 때(보기: /trof/)가 아주 다르다. 다른 보기를 들면, says와 /sez/ 이다.

셋째, 각 음운에 대응하여 자판에 그 음운을 나타내는 글쇠가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음운은 몇 글자의 조합으로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음운이 어떤 글자의

조합으로 나타내야 하는가를 생각해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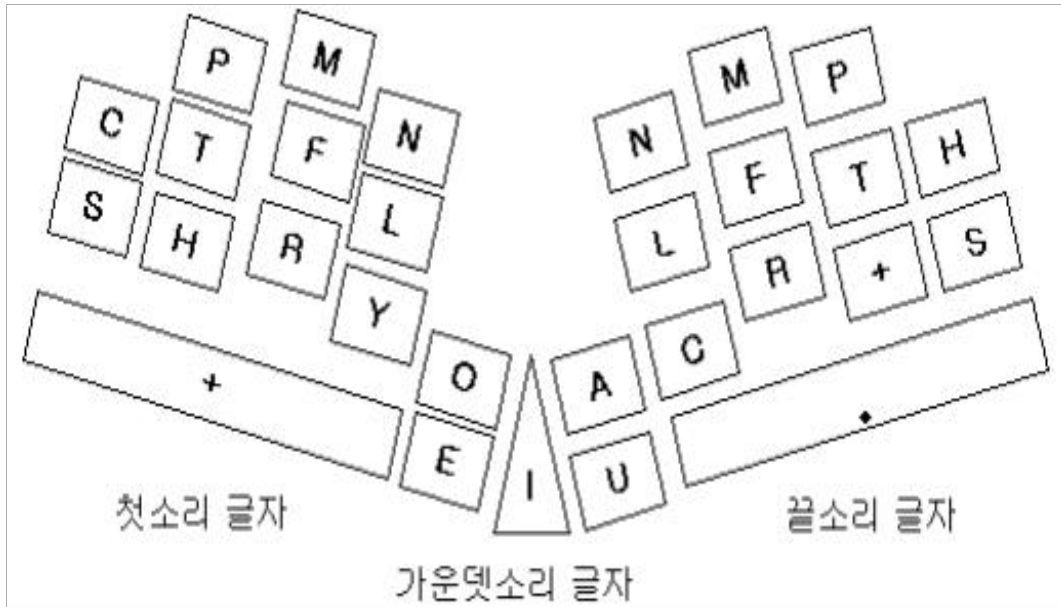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어 빨리 치기는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거의 할 수가 없다.

2.3 영어 빨리 치기 자판은 세벌식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 자판인 QWERTY 자판(아래에서 셋째단 맨 왼쪽의 여섯 글자를 따서 QWERTY 자판이라고 부른다)에는 닿소리와 훔소리 글자 26 개만 나와 있는 두벌식 자판이다. DVORAK 자판도 마찬가지로 두벌식 자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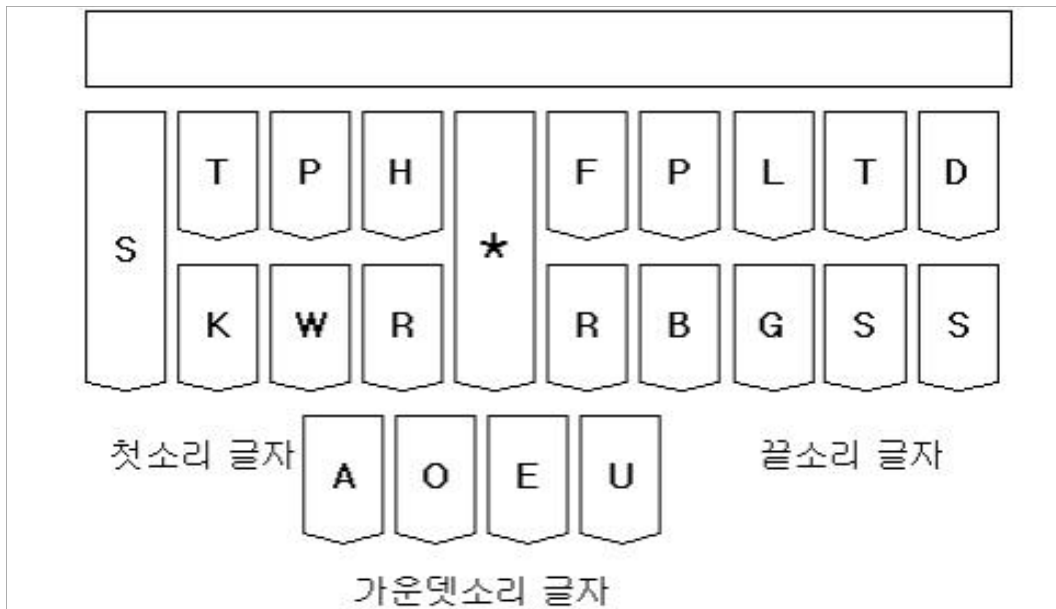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영어 빨리 치기 자판은 소리마디를 하나씩 쳐야 하므로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 글자가 자판에 모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영어 빨리 치기 자판은 세벌식이며, 두벌식인 QWERTY나 DVORAK 자판으로는 영어 빨리 치기를 할 수 없다. 영어 빨리 치기 자판에는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가 따로 자판에 나와 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3.1 영국의 Palantype 속기 기계의 자판



보기를 들어 자판의 왼쪽에도 s가 있고, 오른쪽에도 s가 있다. t, p, h 등도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나온다. 왼쪽에 있는 s는 첫소리 글자이고 (보기: so의 s, result에서 sult의 s), 오른쪽에 있는 s는 끝소리 글자이다 (보기: as, this에서의 s). 가운데에는 가운뎃소리 글자 a, e, i, o, u가 있다. 이처럼 영어 속기를 위한 영국의 Palantype 기계에서 두벌식이 아니라 세벌식 자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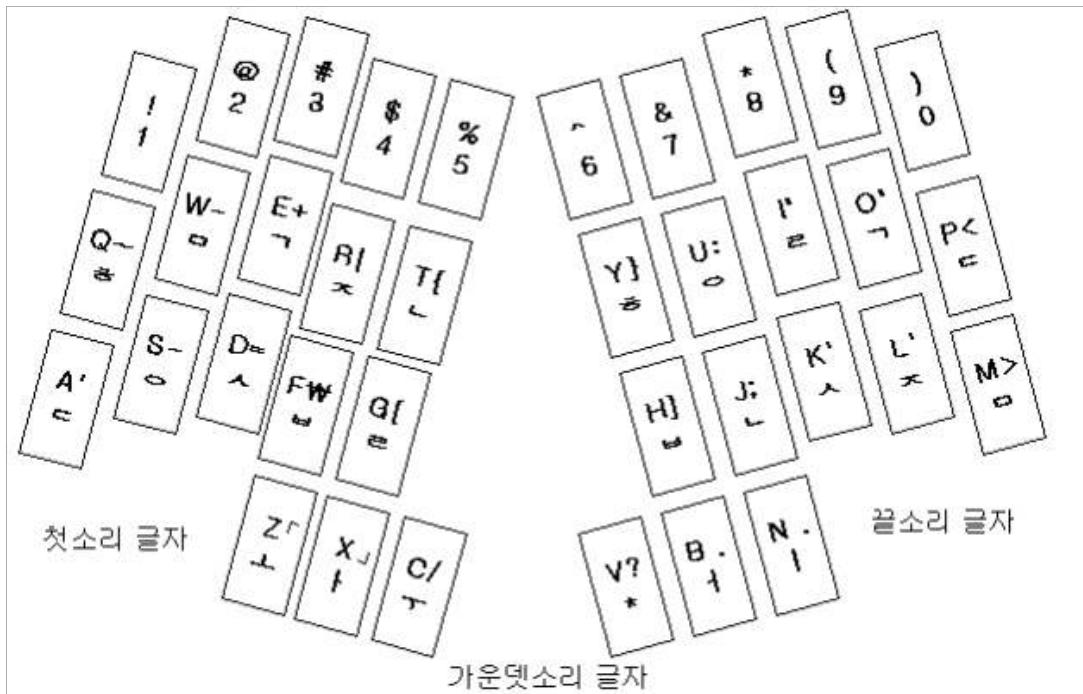
2.3.2 미국의 Stenotype 속기 기계의 자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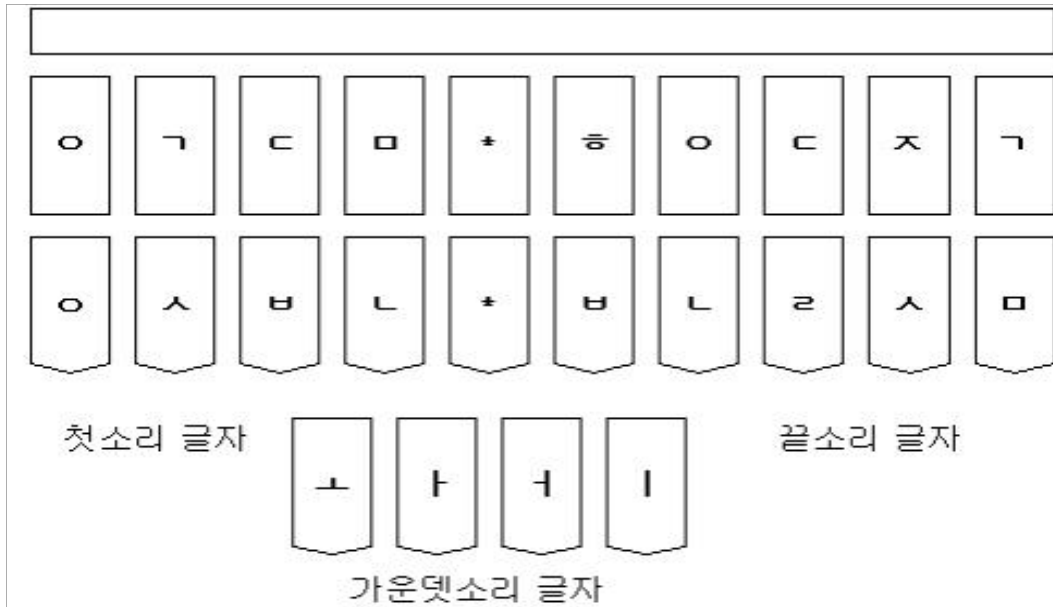
영국의 Palantype과 마찬가지로, 자판의 왼쪽에도 s가 있고, 오른쪽에도 s가 있다. t, p, r 등도 마찬가지이다. 왼쪽에 첫소리 글자, 오른쪽에 끝소리 글자를 둔 세벌식 자판이라는 점은, 영국의 Palantype 기계와 마찬가지이다.

2.4 컴퓨터에서 쓰는 한글 빨리 치기 자판

2.4.1 Palantype 기계에서 쓰는 한글 속기 자판



2.4.2 Stenotype 기계에서 쓰는 한글 속기 자판



위에서 보듯이 Palantype이나 Stenotype처럼 전문가들이 컴퓨터에서 쓰는 한글 빨리 치기 자판은 세벌식인데, 왼쪽에 첫소리 글자가 있고, 오른쪽에 끝소리 글자가 있어서, 오른쪽에 첫소리 글자가 있고, 왼쪽에 끝소리 글자가 있는 공 병우 390 세벌식 한글 자판[붙임 5]과는 글자 배열이 다르다.

현행 정부 표준 자판이 두벌식임에도, 한글 빨리 치기 자판이 세벌식인 것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글이든 영어든, 현재의 빨리 치기 방식은 기본적으로 소리마디 또는 글자마디를 하나치로 하여 치기 때문에, 세벌식으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일반 사람들이 한글을 제법 빨리 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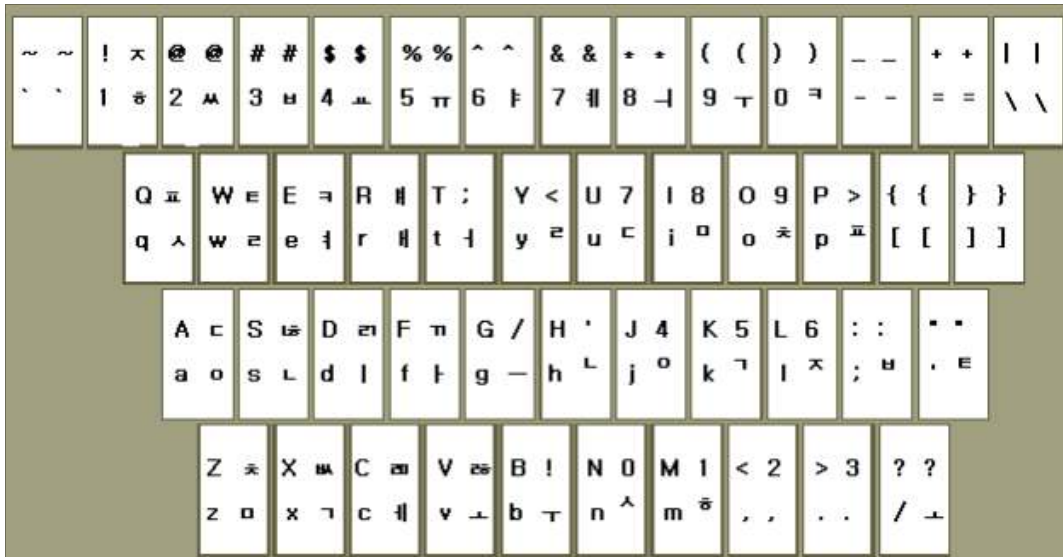
제 2 장에서는 전문가들이 하는 빨리 적기/치기를 살펴보았는데, 제 3 장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한글을 제법 빨리 치는 데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3.1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공 병우 390 세벌식 한글 자판을 써서 한글을 제법 빨리 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 3.2에서는 일반인들이 제법 빨리 치기를 할 때 세벌식과 두벌식 한글 자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끝으로, 3.3에서는 빨리 치기의 관점에서 한글 가로 풀어 쓰기를 살펴보겠다.

3.1 일반 사람들이 한글을 제법 빨리 칠 수 있는 이유

위에서 보았듯이, 영어나 한글 아주 빨리 치기는 아주 빨리 치기를 위한 특수한 한글 자판으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만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글의 특성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공 병우 390 세벌식 한글 자판[아래 그림 참조]으로 전문 훈련을 받지 않고도 일반 자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치는 것(다시 말하여 글자 치기 방식)보다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국회나 법원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수준(다시 말하여 아주 빨리 치기 방식)은 아니다. 이 방식은 글자 치기보다는 빠르지만, 아주 빨리 치기보다는 느리므로, 제법 빨리 치기라고 부르자.

3.1.1 공 병우 390 세벌식 한글 자판



끝소리 글자 가운뎃소리 글자 첫소리 글자

그러면 왜 한글은 제법 빨리 치기가 가능한가? 세 가지 점 때문에 가능하다.

첫째, 영어 빨리 치기에서는 한 번에 소리마디를 하나치(단위)로 하여 자판에서 친다. 그런데 영어 소리마디의 경계를 빨리 알아내려면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하고 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한글은 글자마디 모아 쓰기를 하기 때문에 낱말을 보고 곧바로 글자마디의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다. "해술" 이라고 하면, "해"가 하나의 글자마디이고, "술"이 또 하나의 글자마디라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만 받으면 곧바로 알 수 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한글을 제법 빨리 치기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이다.

둘째, 한글 제법 빨리 치기에서는 소리값을 치지 않고, 글자마디를 그대로 치기 때문에, 글자에서 소리값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 없다. 영어 빨리 치기에서는 글자를 보고 (또는 말을 듣고) 소리값으로 바꾸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 훈련이 아주 어렵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거기에 견주어, 한글 제법 빨리 치기에서는 소리값을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글자마디를 그대로 친다), 일반 사

람들이 제법 빨리 치기를 쉽게 할 수 있다.

셋째, 빨리 치기에서는 한 소리마디를 한 번에 치는데, 소리마디를 한꺼번에 치기 위해서는 세벌식 자판이 있어야 한다. 일반 사람들이 쓰는 영어 자판은 닿소리와 흡소리 글자만 나와 있는 두벌식 자판인 QWERTY나 DVORAK이며, 일반 사람들이 쓰는 세벌식 영어 자판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세벌식 한글 자판이 있기 때문에, 세벌식 자판을 쓰는 사람은 굳이 전문 교육을 받지 않고도 제법 빨리 치기를 할 수 있다

보기를 들어 "각" 이라는 글자마디를 친다고 하면, 첫소리 글자 ㄱ 글쇠와 끝소리 글자 ㄱ 글쇠가 따로 있어야 ㄱ, ㅏ, ㄱ 세 글자를 한꺼번에 칠 수 있는데, 세벌식 한글 자판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두벌식 한글 자판으로는 첫소리 글자 ㄱ과 끝소리 글자 ㄱ을 구별할 수 없어서 한꺼번에 각이라는 글자마디를 칠 수 없다.

영어도 마찬가지이다. 보기를 들어, pop이라는 소리마디를 QWERTY나 DVORAK 자판에서는 한꺼번에 칠 수 없다. 그래서 영어 빨리 치기에서는 첫소리 p와 끝소리 p를 따로 칠 수 있는, 전문가를 위한 세벌식 영어 자판을 쓴다. 그렇지만, 영어 자판을 비롯하여 온 누리에서 쓰는 자판 가운데 우리처럼 일반 사람들이 세벌식 자판을 쓰는 경우는 한글 세벌식 자판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 가지 점에서 일반 사람들이 한글 제법 빨리 치기에 관한 한 온 누리에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3.2 제법 빨리 치기를 할 때의 세벌식과 두벌식 한글 자판의 성능 비교

빨리 치기를 할 때 두벌식을 쓰지 않는 것은, 두벌식으로는 한 번에 소리마디 또는 글자마디를 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어 타자에서 보통 사람들은 세벌식 자판이 없어서 쓰지 않는데도 영어 빨리 치기에서 세벌식이 나온 것을 보면, 빨리 치기에서 세벌식 자판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한글의 경우 일반 사람들이 세벌식과 두벌식 자판을 모두 쓰고 있는데, 글자마디 치기 때 세벌식과 두벌식 가운데 어느 것이 좋은지 살펴보기로 하자.

세벌식으로는 끝소리 글자가 있는 글자마디도 한 글쇠때로 치기가 비교적 쉽지만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가 다른 글쇠를 쓰므로), 두벌식에서는 한 글쇠때로 칠 수 없다. 보기를 들어 세벌식에서는 "간"을 ㄱ + ㅏ + ㄴ과 같이 한 글쇠때(타)로 쉽게 칠 수 있지만, 두벌식으로는 ㄱ + ㅏ + ㄴ과 같이 치면, "간" 인지 "낙" 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두벌식에서는, "각"은 "가"와 "ㄴ"과 같이 두 글쇠때(타)로 나누어 쳐야 하므로 타자 속도가 떨어진다. 또한 "각" 같은 경우에는 두벌식으로는 ㄱ을 한꺼번에 두 번 칠 수도 없다.

이처럼 한글 글자마디 치기를 위해서는 세벌식 자판이 두벌식 자판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빨리 치기의 관점에서 살펴 본 한글 가로 풀어 쓰기

만일 우리가 한글을 지금처럼 글자마디를 하나치로 하여 모아 쓰지 않고, 한글 가로 풀어 쓰기를 하고 있다면 빨리 치기를 할 때 아주 불편함을 알 수 있다.

첫째, 영어처럼 글자마디(또는 소리마디)의 경계가 어디인지 찾아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글자마디 치기 방식을 쉽게 쓸 수 없다.

둘째, 한글을 가로 풀어 쓰면 자판은 두벌식을 쓰게 되기 때문에, 글자마디 치기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제법 빨리 치기를 할 수 없다.

이처럼, 한글 가로 풀어쓰기는 활자 인쇄 시대에는 조금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지만, 컴퓨터가 발달한 지금 별 효용이 없다. 또한 만일 우리가 한글을 풀어 쓰고 있다면, 일반 사람들이 빨리 치기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모아 쓰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큰 장점이라고 본다.

4. 한글 글자마디 치기 방식

"한글 글자마디 치기" 방식은, 일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공 병우 390 세벌식 한글 자판에서 한 글자마디를 이루는 여러 글쇠를 한꺼번에 누름으로써, 한글 입력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글자 치기 자판에서는 한 손가락이 글쇠를 치고 있을 동안, 그 다음 글자를 칠 손가락이 그 글쇠 자리로 이미 움직이고 있게 되는데, 이를 "미리 움직이기"라고 하다. 그런데 글자마디 치기 방식에서는 글자마디를 이루는 글자를 한꺼번에 치고, 다음 글자마디를 이루는 글자를 다시 한꺼번에 치기 때문에 글자 치기 방식에서와 같은 미리 움직이기는 없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여러 글쇠를 누름으로써 타자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한편 글자를 있는 그대로 치기만 해서는 제법 빨리 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속도를 올리려면, 속기에서 많이 쓰는 줄임말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이미 한글 빨리 치기(속기)에서 쓰고 있는 방식을 따르면 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이때까지 글자 치기 방식에서는, 보기를 들어 "간"을 치고자 하면, ㄱ, ㅏ, ㄴ의 순서대로 세 번 글쇠를 치게 (세 타) 된다. 이에 견주어 글자마디 치기 방식에서는 한 번에 되도록이면 한 글자마디를 한꺼번에 치게 된다. 따라서 "간"의 경우, 오른손으로 ㄱ을 치면서 ㄱ 글쇠를 떼지 않은 채, 왼손으로는 ㅏ와 ㄴ을 친 뒤, 비로소 세 글쇠에서 손가락을 모두 뗀다.

4.1에서는 제법 빨리 치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공 병우 390 세벌식 한글 자판에 있는 글자를 분류하겠고, 4.2에서는 한글 글자마디 치기 방식에서 글자(홀글자와 겹글자)를 치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그리고 나서 4.3에서는 한글 글자마디를 치는 방법을 본 뒤, 4.4에서는 타자하는 요령을 보기를 들어가면서 소개하겠다. 4.5에서는 글자마디 치기 방식의 장점을 살펴 본 뒤, 끝으로 한글과 영어 빨리 치기 자판을 4.6에서 견주어 보겠다.

4.1 자판에 있는 글자의 분류

공 병우 390 세벌식 한글 자판에 있는 모든 글자를 다음과 같이 여섯 무리로 나눈다.

(첫째 무리) 첫소리 글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14 개)

(둘째 무리) 가운뎃소리 글자: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ㅡ (15 개)

(셋째 무리) 끝소리 글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ㅂ, ㅅ (21 개)

(넷째 무리) 자판에 있는 글자 가운데, 다른 무리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글자이다. 다시

말하여, 한글 글자도 아니고, 빈 칸도 아닌 모든 특수 글자로 . (마침표), , (쉼표), + (더하기 표), ... 등이다.

(다섯째 무리) 빈 칸 (1 개)

(여섯째 무리) 윗글자쇠 (shift key): 1 개

4.2 글자마디 치기 방식에서 글자(홀글자와 겹글자)를 치는 방법

4.2.1 첫소리 홀글자

첫소리 홀글자는 모두 글쇠가 따로 있고, 윗글자쇠를 쓰지 않아도 되므로, 모두 한 글쇠 한 타로 할 수 있다.

4.2.2 첫소리 겹글자

첫소리 겹글자는 글쇠가 따로 없으므로, 모두 홀글자로 나누어 한 글쇠 두 타로 한다.
보기: ㄱᄂ = ㄱ, ㄱ

첫소리 글자	한 글쇠 한 타	한 글쇠 두 타
홀글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두겹글자		ㄱᄂ, ㄸ, ㅃ, ㅆ, ㅉ

4.2.3 가운뎃소리 홀글자

가운뎃소리 홀글자는 모두 글쇠가 따로 있고, 윗글자쇠를 쓰지 않아도 되므로, 모두 한 글쇠 한 타로 할 수 있다.

4.2.4 가운데뱃소리 두겹글자

1) 두겹글자 ㄱ, ㅋ, ㆁ, ㄴ는 다음과 같이 각각 세 가지가 가능하다.

1-1) 두겹글자 ㄱ, ㅋ, ㆁ, ㄴ는 글쇠 하나로 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칠 수 있다 (한 글쇠 한 타).

1-2) ㄱ은 ㄱ + ㅣ로, ㅋ은 ㅋ + ㅣ로, ㆁ은 ㆁ + ㅣ로 하여 두 글쇠 한 타로 칠 수도 있다.

1-3) ㄱ은 ㄱ, ㅣ로, ㅋ은 ㅋ, ㅣ로, ㆁ은 ㆁ, ㅣ로 하여 한 글쇠 두 타로 할 수도 있다.

2) 두겹글자 ㄴ는 다음 세 가지가 가능하다.

2-1) ㄴ는 윗글자쇠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윗글자쇠를 쓰면 두 글쇠 한 타이다.

2-2) 그런데, ㅏ와 ㅣ를 한꺼번에 쳐도 되는데 이 또한 두 글쇠 한 타가 된다.

2-3) 그러나 ㅏ와 ㅣ를 따로 치면 한 글쇠 두 타가 된다.

3) 두겹글자 ㄷ, ㅌ, ㄹ, ㄺ는 각각 다음과 같이 각각 두 가지가 가능하다.

3-1) 두 글쇠 한 타에 칠 수 있다: ㄷ = ㄷ + ㅏ, ㅌ = ㄷ + ㅣ, ㄹ = ㄹ + ㅏ, ㄺ = ㄹ + ㅣ

3-2) 한 글쇠 두 타에 칠 수 있다: ㄷ = ㄷ, ㅏ; ㅌ = ㄷ, ㅣ; ㄹ = ㄹ, ㅏ; ㄺ = ㄹ, ㅣ;

4.2.5 가운데뱃소리 세겹글자

세겹글자 ㄴ와 ㄹ는 다음과 같이 각각 여섯 가지 가운데 한 가지로 칠 수 있다.

1) 두 글쇠 한 타로 칠 수 있다: ㄴ = ㄴ + ㅏ, ㄹ = ㄹ + ㅏ

2) 한 글쇠 두 타로 칠 수 있다: ㄴ = ㄴ, ㅏ, ㄹ = ㄹ, ㅏ

3) 한 글쇠 세 타로 칠 수 있다: ㄴ = ㄴ, ㅏ, ㅣ; ㄹ = ㄹ, ㅏ, ㅣ

4) 한 글쇠 한 타와 두 글쇠 한 타로 칠 수도 있다

ㄴ = ㄴ, ㅏ + ㅣ; ㄹ = ㄹ, ㅏ + ㅣ

5) 두 글쇠 한 타와 한 글쇠 한 타로 칠 수도 있다

ㄴ = ㄴ + ㅏ, ㅣ; ㄹ = ㄹ + ㅏ, ㅣ

6) 세 글쇠 한 타로 칠 수도 있다

$$\text{내} = \text{ㄴ} + \text{ㅌ} + \text{ㅣ}; \text{네} = \text{ㄴ} + \text{ㄷ} + \text{ㅣ}$$

이 가운데 실제로 두 글쇠 한 타 또는 한 글쇠 두 타를 가장 많이 쓰고, 나머지 네 가지는 잘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운뎃소리 글자	한 글쇠 한 타	두 글쇠 한 타	한 글쇠 두 타	한 글쇠 한 타+ 두 글쇠 한 타; 두 글쇠 한 타+ 한 글쇠 한 타; 한 글쇠 세 타;
홀글자	ㅌ, ㅍ, ㅊ, ㅋ, ㄴ, ㄷ, ㅌ, ㅍ, ㅡ, ㅣ			
두겹글자	ㅌ, ㅍ, ㅊ, ㅋ, ㄴ	ㅌ, [ㅌ], ㅍ, ㅍ, ㅊ, ㅊ, ㅋ, ㅋ, ㄴ	ㅌ, ㅌ, ㅍ, ㅍ, ㅊ, ㅊ, ㅋ, ㅋ, ㄴ	
세겹글자		내, 네	내, 네	내, 네

주. 꺾쇠 ([]) 안에 든 글자는 윗글자쇠와 같이 쳐야 함.

4.2.6 끝소리 홀글자

1) 끝소리 홀글자 가운데 ㄱ, ㄴ, ㄹ, ㅁ, ㅂ, ㅅ, ㅇ, ㅎ 여덟 글자는 모두 글쇠가 따로 있고, 윗글자쇠를 쓰지 않아도 되므로, 모두 한 글쇠 한 타로 할 수 있다.

2) 끝소리 홀글자 가운데 ㄷ, ㅌ, ㅍ, ㅋ, ㅌ, ㅍ 여섯 글자는 모두 글쇠가 따로 있지만 윗글자쇠를 써야 하므로, 모두 두 글쇠 한 타로 할 수 있다.

4.2.7 끝소리 겹글자

1) 겹글자 쓰은 한 글쇠 한 타로 할 수도 있고, ㅅ을 두 번 치는 한 글쇠 두 타로 할 수도 있다.

2) ㄱ은 윗글자쇠를 써야 하므로 두 글쇠 한 타로 할 수도 있고, ㄱ을 두 번 잇달아 치는 한 글쇠 두 타로 할 수도 있다.

3) ㄹ은 윗글자쇠를 써서 두 글쇠 한 타로 할 수도 있고, ㄹ과 ㄹ을 잇달아 치는 한 글쇠 두 타로 할 수도 있다. (참고. ㄹ에서 ㄹ과 ㄹ으로 나누어 두 글쇠 한 타로 치려고 하면, ㄹ과 ㄹ을 치는 손가락이 같으므로 두 글쇠 한 타로 칠 수가 없다.)

4) ㄴㅎ, ㄷㄱ, ㄹㅎ, ㅃ은 각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4-1) 글쇠가 따로 있지만 윗글자쇠를 써야 하므로, 두 글쇠 한 타로 한다.

4-2) 겹글자를 이루는 홑글자를 따로 풀어서 쳐도 되므로, 두 글쇠 한 타로 한다. 보기: ㄴㅎ = ㄴ + ㅎ; ㄷㄱ = ㄷ + ㄱ; ㄹㅎ = ㄹ + ㅎ; ㅃ = ㅃ + ㅅ. 그러나 이 두 글쇠를 한꺼번에 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홑글자 두 개를 치는 두 글쇠 한 타는 꽤 어려울 것으로 본다.

4-3) 두 홑글자를 잇달아 치는 한 글쇠 두 타로 할 수도 있다.

5) 두겹글자 ㄹ은 ㄹ과 ㅅ 두 글쇠를 한꺼번에 치는 것이 쉬우므로 두 글쇠 한 타로 칠 수도 있고, 또한 겹글자를 이루는 두 홑글자로 나누어 잇달아 치는 한 글쇠 두 타로 할 수 있다.

6) 두겹글자 ㄱㅅ, ㄹㅎ 두 개는 겹글자를 이루는 두 홑글자로 나누어 치면 되므로, 한 글쇠 두 타로 할 수 있다. 이것을 두 글쇠 한 타로 치기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본다.

7) 두겹글자 ㄴㅅ, ㄹㅎ, ㄹㅅ 세 개는 겹글자를 이루는 두 홑글자로 나누어 치되, 첫째 홑글자 ㄴ 이나 ㄹ은 한 글쇠 한 타로, 둘째 홑글자 ㅅ, ㅎ, ㅅ은 윗글자쇠를 써야 하기 때문에 두 글쇠 한 타로 치게 된다.

끝소리 글자	한 글쇠 한 타	두 글쇠 한 타	한 글쇠 두 타	한 글쇠 한 타+ 두 글쇠 한 타
홀글자	ㄱ, ㄴ, ㄹ, ㅁ ㅂ, ㅅ, ㅇ, ㅎ	[ㄷ],[ㅈ],[ㅊ] [ㅋ],[ㅌ],[ㅍ]		
두겹글자	ㅃ	[ㄱㄱ],[ㄴㄴ],[ㄹㄹ] [ㄷㄷ],[ㄹㄹ],[ㅃㅃ] ㄷ	ㄱㄱ, ㄴㄴ, ㄹㄹ ㄷㄷ, ㄹㄹ, ㄷㅃ, ㄷㄷ ㄹㄹ, ㅃㅃ, ㅃ	[ㄱㄱ] [ㄷㄷ] [ㄹㄹ]

주. 꺾쇠 ([]) 안에 든 글자는 윗글자쇠와 같이 쳐야 함.

4.3 글자마디 치기 방식에서 글자마디를 치는 방법

1) 글쇠를 칠 때, 한꺼번에 각 무리(4.1 참조)에서 한 글자까지 칠 수 있는데 (다만, 가운뎃소리 겹글자의 경우 ㅏ + ㅣ와 같이 두 글쇠 한 타로 칠 수도 있고, 끝소리 겹글자 ㄹ의 경우 ㄹ + ㅅ과 같이 두 글쇠 한 타로 칠 수도 있을 때는, 같은 무리에서 두 글쇠를 칠 수도 있는 예외가 있지만), 한꺼번에 누르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글쇠를 통틀어서 "글쇠떼"라고 부른다.

글쇠떼를 이루는 모든 글쇠를 꼭 같은 시각에 한꺼번에 누를 수는 없으며, 글쇠떼를 이루는 글쇠를 다 누를 때까지, 이미 눌렀던 글쇠를 계속 누른 채 있어야 한다. 글쇠떼를 이루는 글쇠를 다 누르고 나면, 이제는 글쇠떼를 이루는 글쇠를 떼는데 이 또한 꼭 같은 시각에 한꺼번에 뗄 수는 없으며, 다른 글쇠를 누르기 전에 글쇠를 제 자리로 돌아가게만 하면 된다.

눌렀던 글쇠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모든 글쇠에서 손을 떼면) 아래에 설명된 대로 처리한다. 전통적인 글자 치기 자판에서는 한 번에 한 글쇠(윗글자쇠, 컨트롤, 앞선, 따위를 빼면)만 칠 수 있는데, 글자마디 치기 방식 자판에서는 글쇠떼를 한꺼번에 누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자판과 크게 다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한꺼번에 최고로 글쇠 예닐곱 개를 (윗글자쇠까지 따로 치면) 한꺼번에 눌렀다 뗄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숙달되지 않으면 보통은 너댓 개 글쇠를 한꺼번에 누르는 것이 한계라고 본다.

2) 둘째 무리에 속하는 가운데소리 글쇠가 두 개 또는 세 개 눌러졌을 때는 그 두 (또는 세) 글자를 더해서 가운데소리 겹글자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타로 처리되어야 한다 (보기: ㄴ와 ㄷ는 되지만, ㄴ와 ㄷ는 안 된다). 셋째 무리에 속하는 끝소리 글자가 두 개 눌러졌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3) 여러 개의 글쇠가 한꺼번에 쳐진 경우, 그 글쇠는 첫째 무리 글쇠가 쳐졌으면 그 글쇠가 가장 먼저 쳐진 걸로 하고, 그 다음 둘째 무리 글쇠가 쳐졌으면 그 글쇠가 다음으로 쳐진 걸로 하는 식으로, 다섯째 무리까지 순서대로 쳐진 걸로 처리해 준다. 보기를 들어 첫소리 글자 ㄱ 글쇠를 누르고 나서 그 글쇠를 떼지 않고 누른 채, 가운데소리 글자 ㅏ 글쇠와 끝소리 글자 ㄴ 글쇠를 누르고 나서, 세 글쇠(ㄱ, ㅏ, ㄴ)를 모두 한꺼번에 떼면 "간"을 친 걸로 처리해 준다. 누르는 순서는 반드시 ㄱ, ㅏ, ㄴ의 순서일 필요는 없다.

4) 윗글자쇠가 눌러져 있을 때는 둘째 무리에서 다섯째 무리까지에 해당되는 글쇠 가운데 처음에 오는 글쇠에 윗글자쇠를 적용시키기로 한다. 그런데 윗글자쇠를 처리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앞으로 좀 더 분석을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짐작하기로는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실제 타자 속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5) 한 글쇠때 안의 한글 글자는 반드시 한 글자마디 안에 있어야 한다. 보기를 들어 "감나"를 칠 때 "가"와 "나"로 칠 수 없는데, 그것은 "나"는 "남"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4.4 타자하는 요령: 보기

위에서는 글쇠때가 처리되는 원칙을 보여 주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문장을 보고 글쇠때를 어떻게 누르는 것이 좋을지 보기를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자.

1) 한글 글자마디의 약 60 %는 끝소리 글자가 없는데, 이 때 첫소리 글자와 가운데소리 글자 각각 한 글쇠로 칠 수 있는 글자이고, 그 두 글쇠를 한 글쇠때로 칠 수 있으면 한 글쇠때(다시 말하여 두 글쇠 한 타)로 누르도록 한다. 보기를 들어 "우", "가", "으" 따위는 한

글쇠떼로 누르는 것이 아주 쉬운데, 우의 경우, 오른손으로 ㅇ을 치고, 왼손으로 ㄱ을 치면 된다.

그러나 "예"와 같이 한 글쇠떼로 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ㅇ"과 "ㅋ"을 두 글쇠떼로 나누어 치도록 한다.

2) 한글 글자마디의 40 %는 끝소리 글자가 있는데, 이 때 첫소리 글자, 가운뎃소리 글자, 끝소리 글자를 각각 한 글쇠로 칠 수 있는 글자이고, 그 세 글쇠를 한 글쇠떼로 칠 수 있으면 한 글쇠떼(다시 말하여 세 글쇠 한 타)로 누르도록 한다. 보기를 들어 "일", "간", "방", 따위는 한 글쇠떼로 누르는 것이 아주 쉬운데, 보기를 들어 일의 경우, 오른손으로 ㅇ을 누르고, 왼손으로 |와 ㄹ을 누른다.

그러나 "함"과 같이 한 글쇠떼로 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하"와 "ㅁ"과 같이 두 글쇠떼(타)로 나누어서 치도록 한다.

3) 첫소리 겹글자는 나누어 친다. 보기를 들어 "까다"는 "ㄱ"을 따로 먼저 친 다음, "가"를 한꺼번에 친다.

4) 가운뎃소리 겹글자 가운데 두 글쇠를 쳐야 하는 ㅞ, ㅟ, ㅠ 등은 되도록이면 한 글쇠떼로 치도록 하되 잘 안 되면 나누어 치도록 한다. 보기를 들어 "외"는 세 글자를 한 글쇠떼로 치기가 비교적 쉽다. 그러나 "웬" 같은 것은 네 글쇠를 한 글쇠떼(네 글쇠 한 타)로 치기가 조금 어려우므로 "웨"와 "ㄴ" 또는 "우"와 "ㄴ" 같이 두 글쇠떼로 나누어 치든지, 그것도 어려우면 "우", "ㅋ", "ㄴ"과 같이 세 글쇠떼로 나누어 치도록 한다.

5) 윗글자쇠 자리의 끝소리 글자(보기, ㄷ, ㅈ, ㅎ)가 있을 때는, 그 끝소리 글자를 따로 쳐야 할 것이다. 보기를 들어 "양"은 세 글자를 한 글쇠떼로 칠 수 있지만, "알"에서 ㄷ은 윗글자쇠이므로 "아"와 "ㄷ"과 같이 두 글쇠떼로 나누어 쳐야 할 것이다. 만일 "ㅇ, ㅏ, ㅇ, 윗글자쇠"를 모두 누르면, "알" 이 아니라 "앵" 이라는 글자마디를 친 것으로 여기게 된다.

6) 두 글쇠로 모아 써야 하는 끝소리 겹글자는 두 번에 나누어 친다. 보기를 들어 "읽"의 경우 "일"과 "ㄱ"과 같이 두 글쇠떼로 나누어 치는 것이 쉬울 것이다.

7) 한 글쇠떼 안의 한글 글자는 반드시 한 글자마디 안에 있어야 한다. 보기를 들어 "감나"를 칠 때 "가"와 "ㄴ"으로 칠 수 없는데, 그것은 "ㄴ"은 "남"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8) 띄어쓰기에 필요한 빈 칸은 되도록이면 따로 치지 말고, 그 앞의 글자와 빈 칸을 한 글쇠때로 치도록 한다. 보기를 들어 "안 간다"에서 "안" 만 치지 말고, "안 " (안 뒤에 빈 칸이 따라 옴)을 한 글쇠때로 치도록 한다. 또한 보통 오른손 엄지로 빈 칸을 치지만, 경우에 따라서 왼손 엄지로 빈 칸을 치는 것이 나올 때는 왼손 엄지로 칠 수 있다. 보기를 들어서 "의"에서 ㅇ과 ㄱ를 모두 오른손으로 치기 때문에, 빈칸은 왼손 엄지로 치는 게 나올 수 있다.

9) 어떤 글자마다 다음에 빈 칸이 많이 나오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글자마다와 빈 칸을 한 글쇠때로 치는 훈련을 하면 빨리 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기를 들어 우리말에는 "은, 는, 을, 를, 이, 가, 와, 과, 로" 따위 다음에 빈 칸이 자주 올 것으로 예상된다.

10) 마침표(.)나 쉼표(,)를 치고 나면 보통 빈 칸을 그 뒤에 치게 되는데, 이 때 마침표나 쉼표 뒤에 오는 빈 칸을 따로 한 타로 치지 말고, 되도록이면 마침표나 쉼표와 빈 칸을 한 글쇠때로 치도록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마침표나 쉼표 앞의 글자까지도 한 글쇠때로 치도록 한다. 이 때도 필요한 경우에는 빈 칸을 왼손 엄지로 칠 수도 있다.

어떤 글자마다 다음에 마침표나 쉼표가 많이 나오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글자마다와 마침표 또는 쉼표와 빈 칸을 한 글쇠때로 치는 연습을 하면 빨리 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주 나오는 "다. "에서 오른손으로 ㄷ과 마침표를 한꺼번에 치는 것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다"와 ". "로 나누어 두 타를 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4.5 한글 글자마다 치기 방식의 장점

한글 글자마다 치기 방식을 쓸 때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타자 (입력)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다만, 타자 속도는 꽤 오랜 기간 (적어도 한두 달) 연습을 해야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빨라질 지 재어 보는 것은 쉽지 않다.

2) 자판의 글자 배열은 이미 있는 공 병우 390 세벌식 한글 자판 배열을 그대로 쓸 수 있으므로 따로 글자 배열을 외울 필요가 없다.

3) 오타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타 가운데 꽤 많은 부분이 글자 순서를 바꿔 치

는 것인데 (보기: "가"를 "ㄱ"으로 친다든지, "말"을 "ㄹㅁㅌ"로 치는 것), 이와 같은 것은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글자마디로 처리해 주게 된다. 보기를 들어 글자마디 치기 방식에서는 ㄱ-ㅌ의 순서로 치든 ㅌ-ㄱ의 순서로 치든 모두 "가"를 친 것으로 여기므로, 이런 종류의 오타는 없어진다.

4.6 한글과 영어 빨리 치기 자판을 견주어 보기

영어 빨리 치기가 보통 타자기보다 빠를 수 있는 이유로는, 첫째, 소리나는 대로 친다 (단어 철자법을 따르지 않음), 둘째, 약자를 많이 쓴다 (자주 쓰는 두 세 낱말을 한 글자로 줄이는 수가 많음), 셋째, 여러 글자를 한꺼번에 소리마디를 하나치로 하여 친다의 세 가지로 줄일 수 있다.

글자마디 치기 한글 자판 방식과 비교해 보면, 한글은 원래 소리나는 대로 치게 되어 있으며, 여러 글자를 한꺼번에 쳐서 글자마디를 한 번에 치는 건 이미 한글 글자마디 치기 방식에서 쓰며, 다만 보통 쓰는 자판과 치는 방법을 꼭 같게 하기 위해서 약자는 쓰지 않는다.

어느 정도 속도보다 더 빨리 치려면 결국 약자를 쓰게 되고 그것은 한글 아주 빨리 치기 (속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영어의 경우로 미루어 보건대, 글자마디 치기 방식으로 하면 치는 속도가 빨라진다. 만일 한꺼번에 여러 글자를 치는 방식이 한 글자를 따로 치는 방식보다 느리다면 왜 영어 빨리 치기에서 펄런타입이나 스테노타입 기계를 써서 소리마디를 한꺼번에 치는 방식을 쓰고 있는지가 설명이 안 된다. 그런 기계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소리마디 치기 방식이 빨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5. 맺음말

여기에서는, 일반인들이 공 병우 390 세벌식 한글 자판을 써서 컴퓨터에서 한글을 빨리 칠 수 있는 글자마디 치기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 제안된 "글자마디 치기" 방식은, 한 글자마디를 이루는 모드 글쇠를 되도록 한꺼번에 누름으로써, 한글 입력 속도를 높이고 오타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한글 및 영어 빨리 치기에서는 글자마디를 하나치로 하여 치며, 또한 그 결과로 세벌식 (보기: ㄱ의 경우 첫소리 글자 ㄱ과 끝소리 글자 ㄱ 에 대응하여 각각 글쇠가 따로 있는) 자판을 쓴다. 그런데, 한글은 이미 글자마디를 하나치로 하여 모아 쓰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세벌식 자판이 이미 보급되어 있다는 두 가지 점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통 세벌식 자판으로 글자마디 치기 방식을 써서 컴퓨터에서 빨리 치기를 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은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글자계는 한글 밖에는 없고, 또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자판도 한글 세벌식 자판 말고는 없다는 데서, 우리 한글과 한글 자판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 한편, 두벌식 자판은 아무래도 세벌식보다 빨리 치기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필요한 일로는,

첫째, 여기에서 제안된 글자마디 치기 방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글자마디 치기 방식이 보통 글자 치기 방식보다 얼마나 더 타자 속도가 빠르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 경석 95 가] "한글 정보 처리 기술 표준화 분야의 남북한 협조", 김 경석. '95 Korean 컴퓨터 처리 국제 학술 대회 논문집. 중국 연지. 1995.9.13-15.

[김 경석 95 나] 남북 한글 부호계의 현황과 통일 방안, 김 경석. 광복 50 주년 및 549 돌 한글날 기념, 한국어 정보화 국제 학술 회의, 주제: 남북한 및 한글 문화권의 통일과 세계화. 1995.11.02-03. 31 쪽.

[김 경석 95 다] "일반인을 위한 셸름 빨리 적기 (속기) 자판 '세종 89'", 김 경석. 부산대학교 정보 통신 연구보 제 7 집 (1995.12). 1-32 쪽.

[KS X 5001] KS X 5001 개인용 컴퓨터 (1)

[KS X 5002] KS X 5002:1992 정보 처리용 건반 배열, (KS C 5715-1992).

[KS X 5003] KS X 5003 개인용 컴퓨터용 키보드

[KS X 5004] KS X 5004 개인용 컴퓨터용 키보드 입출력 시스템

[Down 79] "An assessment of Palantype transcription as an aid for the deaf", A. C. Downton and A. F. Newell. International Journal of Man-Machine Studies (1979) Vol. 11, pp. 667-680.

[Down 80] "Operator error performance and keyboard evaluation in Palantype machine shorthand", A. C. Downton, A. F. Newell, and J. A. Arnott. Applied Ergonomics 1980, Vol. 11, No. 2, pp. 73-80.

[Newi 70] "A Structure for real-time Stenotype transcription", J. W. Newitt and A. Odarchenko. IBM Systems Journal Vol. 9-1, 1970, pp. 24-35.

6. 덧붙임: 안 마태 신부의 속기 자판과 관련하여

안 마태 신부의 속기 자판과 관련한 이 부분은 위의 글과는 독립적으로 따로 덧붙인 글이다. 그 전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지만, 2012.12. 월에 안 마태 신부를 또 한 번 만났다. 그리고 안 마태 자판을 두 개 선물로 받았다. 시간이 나면 안 마태 신부 자판을 써 보고, 관련 자료도 본 뒤 좀 자세히 분석하고 길게 글을 써보고 싶지만 시간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 하여 안타깝다.

그럼에도 조금은 남겨 두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한글 이야기 셋째 보따리 책을 내면서 여기에 짚막하게 글을 덧붙인다.

6.1 세종 89 자판과 공 병우 박사

- 컴퓨터 속기를 위한 세종 89 자판은 1989 년에 미국 노스 다코타 (North Dakota) 주 파고(Fargo)에 있을 때 처음으로 개발하여 공 병우 박사에게 알려드렸다. 공 병우 박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었기 때문에 자판에 관심이 많은 공 박사에게 기쁜 마음으로 먼저 알려드렸다.

공 병우 박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라는 것은, 세종 89 자판 방식으로 한글 타자 속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세벌식 자판을 써야만 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공 박사가 개발한 세벌식의 중요성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 박사는 컴퓨터를 잘 알지 못 하여, 여러 글쇠를 한꺼번에 치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글자마디 하나로 모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하였다. 몇 번이나 문서로 보여드리고, 전화로도 설명드렸지만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하여 공 박사에게 설명하는 것을 단념하였다. 결국 공 박사는 돌아가실 때까지 세종 89 자판을 이해하지 못 하였다. 안타까운 일이다. 워낙 기계식과 전동식 타자기 시대에 연구하셨던 분이래, 컴퓨터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일반인을 위한 컴퓨터 속기를 이해하지 못 했다.

6.2 세종 89 자판 개발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

글쓰기가 1989 년에 처음으로 개발한 세종 89 자판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

1)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도 혼자 스스로 훈련을 조금 하면 글쓰기가 제안한 일반인을 위한 한글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참고로 전문가를 위한 컴퓨터 속기는 보통 적어도 몇 년 훈련을 받아야 한다.

- 여기서 잘 알아둘 것은, 글쓰기는 세종 89를 위하여 자판을 새로 개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있는 세벌식 자판이라면 글자 배열이 어떠한든 세종 89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벌식 자판에서 일반인을 위한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는(자판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개발할 것이다.

2) 일반인들이 쓰는 보통의 세벌식 자판으로 - 세벌식이기만 하면 글자 배열이 어떠한든 -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점이다. 다시 말하여 보통의 컴퓨터 속기는 속기 전용 자판이 따로 있지만, 글쓰기가 제안한 세종 89는, 세벌식 자판이라면 글자 배열이 어떠한든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자판을 제안한 게 아니고, 세벌식 자판에서 어떻게 치면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 처음 세종 89 자판을 연구 개발한 때인 1989년에는 그 때의 세벌식 자판을 바탕으로 컴퓨터 속기를 개발했으며, 그 뒤 390 세벌식 자판이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390 자판을 써서 컴퓨터 속기를 할 수도 있다. 세벌식이면 어느 자판이든 일반인이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다.

- 일반적인 보급을 위하여 널리 쓰이는 세벌식 자판을 보기로 들었을 뿐, 글자 배열은 어떻게 하더라도 세벌식이기만 하면 어떤 배열의 자판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 세벌식 자판은 정말 수십 가지가 넘을 것이다. 공 박사가 자판 개선 욕심이 많아서 수시로 발표하였다. 글쓰기가 기억하기로 자판에 이름을 딱히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벌식 자판이 몇 개나 되는지도 잘 알 수 없을 정도이다. 390 이니 최종 자판이나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널리 쓰이는 세벌식 자판을 구별하기 위하여 붙인 것이고, 이름이 제대로 붙지 않은 세벌식 자판도 많다.

6.3 안 마태 신부 자판

- 그런 점에서 안 마태 소리 글판(자판)도 개념상으로는 세종 89의 개념을 바탕으로 세벌식 자판에서 글자의 배열만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세벌식으로 일반인이 속기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은 이미 글쓰이에 의해 1989 년에 연구 개발되었고, 1995 년에 발표한 글쓰이의 논문[김 경석 95 다]에 나와 있던 개념이라는 것이다.

- 그런데, 보기를 들어, "ㄷ" 글쇠가 없다. "ㄷ"을 치려면 "ㅌ" 글쇠와 "ㅇ" 글쇠를 한꺼번에 눌러야 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방식이다. ㄷ뿐만 아니라, ㅋ, ㅌ, ㅍ, 그리고 ㄱ, ㅊ, ㅍ, ㅍ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안 마태 자판은 속기 자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ㄷ <= ㅌ+ㅇ, ㅋ <= ㄱ+ㅇ, ㅌ <= ㄷ+ㅇ, ㅍ <= ㅍ+ㅇ
ㄱ <= ㄱ+ㅇ, ㅊ <= ㅊ+ㅇ, ㅍ <= ㅍ+ㅇ, ㅍ <= ㅍ+ㅇ

6.4 전문 속기사 수준까지?

- 공 병우 박사가 개발하여 발표한 여러 가지 세벌식 자판은 수동 타자기, 전동 타자기,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한 타씩 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세벌식 자판에 세종 89 개념을 적용했을 때 타자 속도가 아주 좋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본인의 연구 핵심은 "세벌식 자판이면 어떤 배열을 하든지,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혼자 연습하기만 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전문 속기사의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속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전문 속기사의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결국 많은 약자(보기: "그러므로"는 어떻게 나타내고, "그러나"는 어떻게 나타내고, ...)를 정의하여 써야 하고, 또한 나중에 프로그램이 가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기능은 그 전에 이미 나왔던 전문가를 위한 컴퓨터 속기에서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안 마태 신부 자판은 이런 점에 관심을 많이 두고 타자 속도를 올리기 위하여 많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 보통의 세벌식 자판을 써서도 좀 더 빨리 글자를 치는 방법, 긴 낱말을 약자로 줄여서 치는 방법, 나중에 프로그램이 가다듬는 과정 등을 보완하면 전문 속기사 수준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보통 사람들은 전문 속기사 수준까지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6.5 세종 89 개념에 따라 여러 가지 글자 배열의 자판이 가능하다

- 따라서 글쓴이가 1995 년에 발표한 논문을 제대로 이해한 자판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세벌식 자판으로 일반인이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글자 배열을 달리한다거나 약자 등을 쓰면 타자 속도를 높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전문가라면 곧바로 생각할 수 있다. 글쓴이의 연구 결과는 글자 배열이 아니라, 글자 배열이 어떠한 세벌식 자판이라면 어떤 세벌식 자판을 쓰더라도 속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일반인이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6.6 안 마태 신부님의 자판을 처음 보던 날

-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2000 년도 초반쯤에 어떤 학회 모임에 갔는데 누가 글쓴이에게 컴퓨터를 들고 와 자판을 설명하고 나서, 글쓴이더러 "이런 자판이 가능합니까?"하고 묻기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당연히 가능하지요"라고 답변했다.

- 그랬더니 놀라면서 자기가 물어본 많은 사람(대부분 컴퓨터 전문가라는 사람들) 가운데 가능하다고 말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고, 더욱이 그것도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듣자마자 대번에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놀라워했다.

- 그래서 글쓴이가 말했다. "선생님의 타자 방식은, 제가 이미 오래 전에(1989 년)에 연구 개발하였고, 1995 년에 논문으로 발표한 개념과 꼭 같은데, 선생님의 자판은 글자 배열만 공 병우 세벌식 자판과 다를 뿐입니다"라고 답변했다.

- 알고 보니 이 분이 바로 안 마태 신부였다. 안 마태 신부는, 글쓴이가 미국에서 유학 하던 시절에 공 병우 박사를 통하여 이름은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날 그렇게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 다른 사람들은 안 마태 신부에게 다들 "그런 자판은 안 된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고 하면서, 자기 자판을 인정해 주는 글쓴이를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하였다. 그 뒤

글쓰이는 안 마태 신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째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과 직관만으로 생각하고 말할까? 과학적인 자세가 모자란다.

6.7 안 마태 자판의 타자 속도

- 2011.12.월에 한국에 오신 안 마태 신부를 합정동에서 만났다. 그런데 공 병우 390 자판보다 글자 치기 방식으로 (글자마디 치기 방식이 아니라) 안 마태 자판이 1.5 배 속도가 빠르다고 하였다. 글자마디 치기 방식이란 한 번에 글쇠 여러 개를 눌러서 글자마디를 치는 컴퓨터 속기 방식이고, 글자 치기 방식이란 한 번에 글자 하나씩 치는 보통의 타자 방식이다. 그런데 한 번에 한 자씩 치는 타자 방식에서 글자 배열만 달리하여 속도가 1.5 배가 된다는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속도가 빠른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아직 분석하지 못 했다고 한다. 다만 실험 결과라고 말했다.

- 딱히 틀렸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글자 배열만을 바꿈으로써 속도가 1.5 배 올라간다는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글쓰이도 나름대로 자판 전문가인데 수십 년 자판 연구를 했지만, 그런 말은 처음으로 들어본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가 현재 글쓰이의 잠정적인 결론이다. 언젠가 누가 시연함으로써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를 분석하여 알려주기를 바랄 뿐이다.

- 참 아쉬운 점이다. 실험에 참여한 꽤 많은 사람들이 속도가 1.5 배 빠르다는 자료를 보았을 텐데, 그 자료를 보고 속도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지에 대해 왜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 실험 결과만 보여주면, 실험 과정이나 실험 때의 가정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해석을 명쾌하게 내놓아야 다른 전문가들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아쉽게도 그런 분석과 해석은 아직 없다.

- 안 마태 신부는 연세가 많고 따라서 건강도 조심스러운데, 살아계실 때 그런 분석과 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내놓으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잘 될지 모르겠다. 안 마태 신부의 건강을 빈다.



안 마태 자판, http://daram2.ahndesign.kr/shop/content.php?co_id=use

